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수사일보

정치일보

제 1118 호 대표전화 (062) 373-6448 (음력 05월 03일) 2026년 06월 17일 수요일

광주시, 18일 공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 '매칭데이'

사회연대경제 우선구매 매칭데이 포스터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시청 시민홀서…공공기관 등 22곳·기업 40여곳 참여

1대1 맞춤 구매 상담·온라인 입점 지원 등 판로 개척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가치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시청 1층 시민홀에서 '2026 사회연대경제 우선구매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지방조달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을 다지고 혁신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매칭데이에는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을 비롯해 한전KPS, 한전KD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까지 총 22개 기관과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40여개사가 참여해 상생 협력의 장을 펼친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1대1 맞춤형 우선구매 매칭 상담'은 사전에 기관별 수요 품목을 분석해 매칭을 완료했다. 행사 당일에는 참여 기업당 15분씩 최대 4개 기관과 심도 있는 구매 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계약 성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동반성장몰, 가치장터, 가치사세몰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담도 진행한다. 또 광주지방조달청 등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상시 전문상담 부스를 운영해 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시청 시민홀 내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홍보전시관을 조성,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과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매칭데이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지역 공공기관들이 가치소비를 실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직접 발굴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적인 공공구매 연계 체계를 공고히 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공공시장 판로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기업별 특성과 제품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발전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기아, 'Eurosatory 2026' 방산전시회 참가

기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인 'Eurosatory 2026'에 참가해 다양한 군용차량을 선보인다.

1967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며 올해 29회째를 맞이한 'Eurosatory 2026'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Paris Nord Villepinte) 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66개국 2,3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방위산업 관련 첨단 기술과 장비 등을 전시한다. 기아의 Eurosatory 참가는 지난 2016년 이후 10년만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기아는 경형부터 대형까지 아우르는 특수차량 풀라인업의 경쟁력을 알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기아는 ▲경형인 '타스만 군용 지휘차' ▲'소형 전술차(KLTV, Kia Light Tactical Vehicle) 2인용 카고 차량' 실물과 ▲차세대 중형표준차 및 대형표준차 모형을 전시한다.

타스만 군용 지휘차는 픽업 특유의 오프로드 성능과 다양한 안전·편의 기능에 더해 무전기, 등화관제 등 특수사양을 장착하여 작전 능력을 강화한 차량이다.

군용 차량에 필요한 내구성과 운전 편의성뿐 아니라 첨단 기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국군의 표준 지휘차로 실전 투입됐으며, 국내뿐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소형전술차는 ▲60% 종경사·40% 횡경사 및 수심 760mm 하천 등 극한 조건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고 ▲총탄·폭발물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극저온(영하 32도)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등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

특히, 이번 Eurosatory 2026에서 전시되는 2인용 카고의 경우 공기흡입구를 높여 도섭능력1)을 향상하는 스노클(Snorkel)과 엔진 냉각 시스템이 탑재돼 사막·열대우림·산악 등 지형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 기아의 소형전술차는 한국군뿐 아니라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폴란드군의 신형 표준차량으로 선정되며 뛰어난 상품성을 다시 한번 입증받은 바 있다.

기아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하고, 특수차량 수출 확대를 위한 신규 고객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